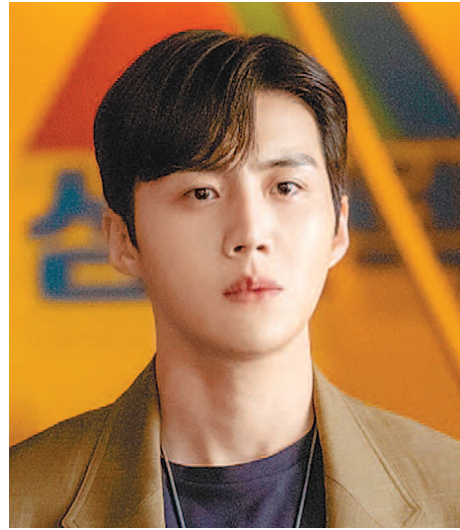


# 1박2일·차기작 줄줄이 하차...연예계 퇴출 위기

스타덤 오른 이후 1년 만에 추락 1박2일 제작진 “김선호 분량 편집” 주연 예정됐던 영화 출연도 포기 광고 브랜드들 ‘김선호 지우기’ 피해여성 신상털기 2차 가해 우려



배우 김선호가 최근 힙싸인 사생활 관련 의혹들을 인정하고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즌4 등 출연 작품들에서 하차했다. 사진제공 | M

“정말 죄송합니다.”  
단 1년 만에 ‘추락’이다. 연기자 김선호(35)가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 폭로가 불려온 파문에 휩싸인 지 4일 만인 20일 모든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출연 중인 프로그램과 차기작 등에서 하차하고, 모델로 나선 광고에서도 이미지가 삭제되는 등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 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0월17일 첫 방영한 tvN ‘스타트업’으로 스타덤에 오른 이후 정확히 1년 만이다.

## ● “좋은 감정으로 만난 분에게 상처”

이날 김선호는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최근 제 이름이 거론된 기사가 나가고 처음으로 겪는 두려움에 이제야 글을 남긴다”면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17일 밤 온라인상에 ‘K배우가

혼인을 빙자하고, 임신중절까지 종용했다’는 글을 올린 A씨가 “좋은 감정으로 만난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교제) 과정에서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서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못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서 “K배우와 교제하면서 아이를 가졌지만 낙태를 종용받은 뒤 이별을 통보받았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김선호는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로서 설 수 있었는데 그 점을 잊고 있었다. 실망감을 드러 죄송하다”면서 “부족한 저로 인해 작품에 함께 한 많은 분과 모든 관계자분께도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 ● ‘1박2일’과 영화 등 모두 하차

김선호가 이 같은 입장과 사과의 뜻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 인해 연예활동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향후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호는 20일 현재 고정 출연 중인 KBS 2TV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기로 했다. 이날 ‘1박2일’ 제작진은 “김선호 촬영 분량은 최대한 편집하겠다”면서 당분간 그를 제외한 촬영을 이어가면서 출연진 재정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김선호는 ‘도그데이즈’와 ‘2시의 데이트’ 등 주연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영화 출연도 포기했다. 각 영화 제작진도 주연 연기자를 교체해 촬영할 계획이다. 앞서 김선호와 관련한 사생활 의혹이 제기된 뒤 그를 모델로 내세웠던 피자, 마스크, 온라인 쇼핑몰 등 브랜드들도 S

NS 계정과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그의 이미지를 삭제하기도 했다.

## ● “2차 가해 우려까지”

이처럼 연예계가 그의 이름을 빠르게 지워가는 분위기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선호 측의 능동 대응이 화를 더욱 키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선호의 소속사는 의혹 제기 이후 침묵을 유지하다 3일 만인 19일야 “사실 관계 파악 중”이라고 밝혀 방송가 안팎에서 비난을 샀다. 그 사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만료 여부 등 사태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각종 추측성 루머까지 퍼지면서 혼란만 가중됐다. 17일 종영한 tvN ‘갯마을 차차차’를 비롯해 ‘1박2일’ 등 출연작 제작진도 김선호 측의 입장을 기다리느라 쉽사리 대응책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관련 의혹을 제기한 A씨를 향한 2차 가해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온라인상에는 A씨의 과거 경력과 현재 직업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일부 매체와 누리꾼이 이른바 ‘신상털기’에 나서는 등 해당 정보를 유포·공유하면서 2차 가해의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수사반장’ 최불암, 경찰청 초대 명예 형사국장



최불암

‘수사반장’ 최불암이 20일 경찰청 초대 명예 형사국장(치안감)으로 위촉됐다. 1970~80년대 MBC 인기드라마 ‘수사반장’의 주인공인 그는 1972년 명예 경감으로 ‘임명’된 뒤 1977년 경정, 2012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어 2018년 명예 경무관에 올랐다. 이로써 최불암은 50년 만에 치안감으로 승진, 12만8000여명의 경찰관 가운데 30명에게만 주어지는 계급장을 달았다. 그와 함께 배우 김영철과 김성환, 드라마 ‘보이스’의 이하나, ‘지리산’의 김은희 작가, 영화 ‘범죄도시’의 강윤성, ‘청년경찰’의 김주환 감독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명예 경찰관이 됐다.

### NCT127 ‘페이보릿’ 모티브 단편소설 선배

그들 NCT127이 신곡 ‘페이보릿’(Favorite)을 단편소설로 선보인다. 이들은 22일까지 공식 SNS계정을 통해 ‘페이보릿’의 노랫말을 모티브 삼은 단편소설을 공개한다. ‘Story Of Favorite(페이보릿 이야기)’라는 타이틀 아래 소설의 주인공으로 변신한 각 멤버들의 이미지와 영상으로도 팬들을 만난다. ‘페이보릿’은 NCT127이 25일 오후 6시 각 음원사이트를 통해 내놓을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비극적인 사랑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내용을 노랫말에 담았다.

### 잠실한강공원 인근에 뷔 ‘태형 숲1호’ 조성



뷔(김태형)

그들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김태형)의 이름을 딴 숲이 조성된다.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뷔의 팬 170명이 모금을 통해 서울 잠실 한강공원 잠실대교 인근에 느티나무 4그루, 조팝나무 1200그루를 심어 ‘태형 숲 1호’를 꾸몄다고 밝혔다. 뷔의 팬들은 “평소 뷔가 공유하는 일상을 통해 삶에 큰 힘을 얻어 이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숲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태형 숲 1호’는 한 팬이 SNS를 통해 처음 제안한 뒤 또 다른 팬들이 동참하면서 실제 조성에 이르렀다.

### 연기자 조재윤, 취약계층에 마스크 3만장 기부



연기자 조재윤(가운데)이 취약계층을 위해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재윤은 우아한스케이 전은표 대표(오른쪽)와 함께 18일 마스크 3만장을 경기 남양주시북지재단에 기탁했다. 조재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남양주시의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1인 1계좌 후원’ 홍보 영상을 촬영하며 깜짝 기부 소식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왔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기부, 소방관 개인 장비 후원,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용품 지원 등을 해왔다.

### ‘매트릭스’ 새 시리즈 ‘리저렉션’ 12월 국내 개봉

전 세계 흥행작 ‘매트릭스’의 새로운 시리즈가 12월 국내 개봉한다. 수입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는 20일 ‘매트릭스:리저렉션’을 12월 국내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미래세계에 인간의 뇌를 지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면서 가상의 공간인 매트릭스에서 인공지능 컴퓨터와 인간들이 벌이는 대결을 그리는 시리즈의 새 작품이다. 키아누 리브스와 캐리 앤 모스 주연으로 1999년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며 SF영화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해왔다. ‘매트릭스:리저렉션’은 원주러 네오를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는 인간과 기계의 대결을 그린다.

편집 | 안도영·유진환 기자

# ‘오징어게임’ 이정재, 감독으로 변신

배우 이정재가 다시 영화 제작현장으로 복귀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인기를 뒤로하고 영화 연출자로서 자신의 일을 다시 이어나간다. 조만간 미국으로 날아가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정재는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한창 촬영 중인 영화 ‘헌트’(가제)를 연출해왔다. 1980년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을 배경으로 두 요원이 남파 북한 공작원을 쫓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정재는 연출과 함께 안기부 요원 역을 연기하며 주연으로도 나서고 있다. 또 정우성과 함께 이끌고 있는 기획사인 아티스트컴퍼니의 이름으로 공동제작자로 이름을 올린다. 이정재와 20년 넘게 우정을 다져온 정우성도 그에게 힘을 보태며 영화에 출연하고 있다.

‘헌트’는 제작비 규모 1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물인데다 첩보액션을 포함한 만큼 작품의 규모를 엿보게 한다. 이제 막 영화 연출자로 데뷔하는 ‘신인감독’에게는 버거울 수도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정재는 ‘헌트’가 오랜 시간 자신이 참여해 다져온 기획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배우 이정재의 다음 행보는 영화 ‘헌트’이다. 직접 연출과 주연을 맡은 영화를 완성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출처 | 이정재 인스타그램 캡처

## 내년 개봉 100억 규모 ‘헌트’ 연출·주연 맡아 제작현장 지휘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주연을 맡아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제작이 무산됐지만, 이정재는 애정을 놓지 않았다. 제작진과 함께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등 기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연출 제안을 받은 끝에 현장에 나서게 됐다. 이정재는 “당초 영화 연출이나 제작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서 “하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았다”면서 감독 데뷔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일 영화계 한 관계자는 “이정재가 아주 열정적인 자세로 현장에 나서고 있다”면서 “제작 규모가 큰 작품에 촬영 회차가 만만치 않은데 큰 차질 없이 제작현장을 지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정재는 최근 ‘오징어게임’과 관련해 미국 NBC 인기 토크쇼 ‘지미 팰런쇼’에 출연하고 유력 신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는 등 해외에서도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 그가 조만간 미국으로 날아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테드 사란토스 공동 최고경영책임자(CEO) 등 넷플릭스 고위 관계자들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전도연·고현정 ‘시청률 고전’...왜?

전도연 ‘인간실격’ 시청률 1%대  
고현정 ‘너를 닮은 사람’ 2%대  
연기 호평 불구, 어둡고 무거워

오랜만에 안방극장 무대에 톤 스타 전도연과 고현정이 기대 섞인 예상과 달리 시청률 고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현재 방영 중인 JTBC ‘인간실격’과 ‘너를 닮은 사람’의 주연으로 나서고 있지만, 저조한 시청률과 함께 별다른 화제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쉬다는 반응을 자아내고 있다.

‘인간실격’은 지난달 4일 4.2%(닐슨코리아)였던 시청률이 24일 종영을 앞둔 최근 1.6%까지 떨어졌다. 전도연이 2016년 t

vN ‘굿 와이프’ 이후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며 선택한 무대로 관심을 모았지만 시청률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드라마는 대필작가가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청년(류준열)을 우연히 만나 삶의 의지를 되찾아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전도연의 연기는 “여운이 남는다”는 등 호평이 잇따르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는 “드라마가 지나치게 어둡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드라마 실시간 댓글창에는 “캐릭터들의 심경 변화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

13일 방송을 시작한 ‘너를 닮은 사람’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에세이 작가 겸 화가가 과거부터 약연으로 얽힌 미술교사(신현빈)과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



배우 전도연(왼쪽)과 고현정(오른쪽)이 각각 JTBC ‘인간실격’과 ‘너를 닮은 사람’으로 안방극장에 돌아왔지만 2% 남짓한 시청률을 겨우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제공 | JTBC

리는 드라마는 최근 2.6%의 시청률에 그쳤다. 아직 방영 초반이어서 시청률 반등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치정과 복수 소재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는 시청자가 적지 않다. 2019년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 이후 고현정이 2년 만에 나선 드라마이지만, 시청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

표를 받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20일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드라마 속 이야기의 깊이와 별개로 시청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상업적 재미”라면서 “톱스타 기용이 초반 화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더라도 최근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드라마를 선호하는 시청자의 취향과는 다소 동떨어진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믹 장르를 앞세운 SBS ‘윈더우먼’이 13.3%까지 시청률을 끌어올리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점과도 대비된다.

자연스럽게 전지현, 이영애 등 향후 안방극장에 돌아오는 스타들의 시청률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지현은 ‘스타’ 김은희 작가의 신작인 tvN ‘지리산’을 23일, 이영애는 2017년 SBS ‘사임당 빛의 일기’ 이후 4년 만의 드라마인 JTBC ‘구경이’를 30일 내놓는다.

윤지혜 기자 yjh0304@donga.com